

# 광주-전남-나주, 혁신도시 기금 마중물 삼아 상생·발전 본격화

### 시·도, 발전기금 50억원 첫 조성 공공기관 연계 지역 균형발전 사업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활용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공동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공식 재원을 마중물 삼아 시·도 상생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4일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원이 첫 조성됨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혁신성장 허브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해 제정된 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매년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를 재원으로 50억원을 출연한다. 이 기금은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성과를 다른 지자체에 돌려줌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시·도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애초 이 기금은 공동 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 2006년부터 운용돼야 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나

주시 간 기금 규모, 사용처, 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2022년 7월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2023년 조례 제정과 기금 관리위원회 구성, 공인제작, 통장개설 등 기금조성 절차를 마무리했다.

기금은 ▲시·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혁신도시와 연계해 전남도·광주시 공동 추진 사업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기금 조성을 계기로 공동혁신도시 성과 확산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과 함께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현재 해당 기금과는 별도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복합센터 등 복합문화 기반(인프라) 구축,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대학-이전



나주시에 들어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최근 첫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원을 조성하고, 시·도 상생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상생협력을 위한 장학사업,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역공헌 활동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박승욱 광주시 광역협력담당관은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광주와 전남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전남도, 나주시와 함께

발전기금이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또다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필수의료 중심 공공의료정책 강화한다

### 시립 2 요양병원 폐원 후속 대책 응급·소아·산부인과·정신과 중심 의료취약계층 지원, 감염병 대응

광주시가 시립 제2요양병원을 폐원하는 대신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필수 의료 중심의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한다.

시는 또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종료에 따른 요양병원의 의료공백 최소화과 직원 재취업 문제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종료에 따른 공공의료 정책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폐원, 응급의료 지연, 정신을

급환자 진료 미흡 사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의료 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와 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둔 공공의료 안전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일단 시립제2요양병원의 운영 종료에 따라 향후 병원부지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립제2요양병원 부지는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요양병원을 폐업하면 의료기관의 재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요양병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2요양병원 폐쇄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2013년 제2요양병원 개원 당시만 해도 광주에는 요양병상(36개 병원 9126병상)이 부족했으나,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지역에는 62개(요양)병원에서 1만4438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전국 1위 수준으로, 병상가동률도 67%(잔여

병상 4723개)에 그치고 있다.

또 민간 요양병원에서 관리가 어려운 중증치매환자와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시립제1요양병원(257병상·병상가동률 58%)이 맡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시립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의 운영 종료에 대해서는 수탁자(위탁 운영자)와 충분히 협의해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립정신병원·제1요양병원 수탁자는 광주시에 추가 지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4월 30일까지 조건부 해지를 통보한 상태로, 광주시는 정신 응급 및 치매안심병원을 필수의료 분야로 구분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영역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치킨'

### 라면·김치·비빔밥 순...한식하면 떠오르는 메뉴는 '김치'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과 라면, 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해 베이징, 호찌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0.0%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높아졌다. 2019년 54.6%에서 지난해까지 꾸준히 높아졌다. 최근 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5%였다.

한식 만족도는 92.5%로 전년(94.2%)보다 낮아졌지만, 최근 5년 동안 매년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메뉴는 김치가 40.2%(중복응답)로 압도적인 1위였으며 2위는 비빔밥(23.6%), 3위는 불고기(16.3%)였다. 이어 한국식 치킨(13.3%), 고구마(12.0%), 떡볶이(11.7%), 김밥(9.0%), 라면(8.3) 등이 뒤따랐다.

최근 1년간 자주 먹은 한식은 한국식 치킨(29.4%·중복응답), 김치(28.6%), 라면(26.9%) 순이었고,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6.5%), 라면(11.1%), 김치(9.8%), 비빔밥(8.8%) 순이었다.

K팝·K드라마 등 K콘텐츠의 인기를 업고 치킨과 라면 등의 인기가 부쩍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 무안 오리농장서 AI항원 검출...고병원성 검사 중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새해에도 전남 오리 농장을 덮으면서 축산 농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해제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 이날 AI 항원이 검출,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중이다.

해당 농장에서는 육용오리 3만 3000마리를 사육 중이며 지난해 12월 27일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출하를 앞두고 이뤄진 정기검사서서 AI

항원이 검출됐다.

특히 해당 농장 인근 10km 일대 7개 농장에서 50만 7000마리(닭 46만 3000마리, 오리 4만 4000마리)가 사육중인데다, 철새도래지인 무안저수지(23.9km), 함평대동지(17.7km)도 멀지 않아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이 농장은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무안군 일로읍 육용오리 농장 과도 31km 떨어져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오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무안군 보유 소독차량(10대)을 동원, 하루 3차례 이상 집중 소독과 무안지역 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또 전남지역에서 AI가 검출된 7곳의 농장 중 4개 농장이 같은 계열사의 오리 사육 농장이라는 점에서 발생 계열사 농장-관련업체들에 대해서도 일시이동중지명령(24시간)을 내린 상태다.

한편, 전남에서는 고흥(12월 3일) 육용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무안(5일·육용 오리), 영암(13일· ), 장흥(20일· ), 영암(22일· ), 보성(25일· )에서 무안에서 또 AI 항원(H5형)이 검출되는 등 서남해안 가금류 사육 농가들을 중심으로 AI가 잇따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2035년까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00% 완료

일본 노토반도 강진으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작업을 2035년까지 100%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구조를 보강하면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2028년까지 집

중적으로 추진해 2023년 기준 76.5%인 내진율을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한다.

도로와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 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 재난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친다.

소방·경찰관서,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 고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연합뉴스

## 개발부지 매매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매매금액

720억

대지면적

66,773㎡ (20,198평)

연면적

33,730㎡ (10,203평)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도 등 첨단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영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3년 12월 26일 주주총회의결 의결로 자본의 총액 금1,500,000,000원을 금 3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20,000주를 유상소각 하여 발행주식총수 150,000주를 3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의 게재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

2024년 1월 5일  
주식회사 한국교육진흥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265번길 29, 3층 (신창동)  
대표이사 김소진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12월 2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주식회사 그린상사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학유정길 57-2  
청산인 정 형 복

kwangju.co.kr

##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